



영양군 두 번째 울산광역시 소비자 공략

영양군이 12일 울산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함께 영양군 도농상생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사다. 행사에서 로컬푸드직매장, 영양고추유통공사, 관내 농업인이 건고추, 고춧가루, 양봉 및 나물류 등 25여 품목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울산 아파트 소비자를 공략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급변하는 유통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장기적 통합마케팅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사진=영양군 제공)

## 인건비 예산 편취부터 고위 공무원 까지 뺏어가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리 의혹

용혜인 의원, 대구경찰청 대구시 유력한 토착 권력 앞에 정상적인 수사 진행 포기 의심... 뼈 있는 충고 홍준표 시장 지배력 행사 공적감사 안받아 비리누적

DMI의 독특한 점은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은 아니면서도 대구시장이 임명하는 경제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 연구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장이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면서도 정부나 대구시 의회의 감사에서 면제를 받아왔다. 때문에 용 의원은 "지배구조 상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계상률을 포함, 1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보된 연구개발사업 참여율표를 보면 원장의 운전기사, 시설수리담당자, 경영기획본부장 등의 비연구원 직원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연구사업 종류별로 구분한 2020년과 2021년의 인건비계상률 역시 110~130%까지 100% 초과한 월이 대부분이다.

DMI 내부자는 "이는 이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물이 DMI로 귀속되지 않고 대구시로 귀속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DMI가 아니라 대구시가 발주해야 하는 연구용역 사업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제보 자료를 보면, DMI가 해당 용역을 낙찰받은 업체에 보낸 이메일에 수신인 직원 2명이 해당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직원으로도 활동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 내부자들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총 15건에 이르는 DMI의 각종 비리를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대구경찰청으로 수사의 의뢰 이첩했다.

▶연구개발 사업 관련 온갖 비리 횡행 DMI 관계자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보한 DMI 비리 의혹에 따르면 연구개발 지원 공적자금을 원장을 포함한 연구기관 고위직들이 횡령한 다양한 방법들에 허를 내두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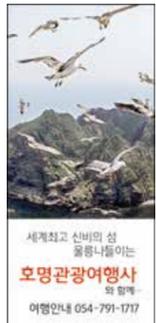
이렇게 공적 보조금이 들어가는 연구개발비 인건비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기관으로서의 이례적으로 큰 운영적립금을 축적했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이메일 수신인 2명의 이름이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누리집에 직원으로도 등재돼 있었다. 이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가 실체상 동일 업체였다는 의혹을 강하게 시사한다. 다만 현재 해당 업체 누리집은 이들의 이름이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이첩일로부터 1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수사는 답보 상태에 있다. 대구시 고위직 연루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폭로했다. 용 의원은 "의원실에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비리 의혹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수사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대구시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는 것은 경찰이 대구시 토착 권력의 눈치를 보고있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DMI 비리 의혹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은 공공기관의 기계부품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다.

▶고위 공무원 관련 비리 의혹 대구시 고위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된 이후 2022년 6월 경 DMI의 원래 계획에 없었던 연구용역이 불쑥 들어왔다. DMI가 원래 진행하던 연구개발 사업의 명칭은 '로봇 산업 거치사슬 확장 및 생산 시스템 구축사업'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구 서비스로봇산업 육성전략 수립'이라는, 원래 수행하던 사업과는 이질적인, 용역비 1억 12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이 추가 들어온 것이다. DMI 관계자는 "대구시 고위직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직원들까지 사전에 만나는 등 낙찰자를 사전에 지정한 불법 연구용역이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DMI의 해당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는 "대구시 서비스로봇산업의 단계별 육성방안과 실행 전략을 수립, 대선포약 '2030 서비스로봇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의 청사진으로 활용코자 함"이라 기재돼 있다.

이상의 의혹을 요약하면 '홍준표 시장 당선 이후 대구시 고위 공직자가 DMI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 대구시가 수행할 연구용역 사업을 DMI가 수행하게 했고, 그것도 대구시 고위공무원이 사전 지정한 업체가 낙찰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보 자료는 퇴직을 1년 정도 앞둔 대구시 고위 공직자가 유관기관인 DMI에 취업한 뒤 자신의 인적영향력을 이용해 DMI에 300억원 상당의 사업을 몰아주었다는 내용이다. 용혜인 의원은 "제보된 DMI 비리 의혹의 구체성과 신빙성 등을 종합하면 권익위 이첩일로부터 1년 가까이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 전현직 대구시 고위직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납득하기 힘들다. 경찰이 대구시의 유력한 토착 권력 앞에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포기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조여은 기자



세계최고 신비의 성 공룡이 돌아오는 오명관 광어행사

### 단체장 일정



최기문 영천시장은 14일 오전 영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4일 오전 사고 추제장에서 실과원 소읍면장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한다.

## 원전 건설 하자 7년간 1200여곳 발견...

원전 25기서 총 888개 철근노출 확인 한빛 철근노출 건수 457개 절반 넘어 월성 410, 고리 100, 한울 42 개 차지 허중식 의원, 시공관리 미흡원인 지적

월성 410개, 고리 100개, 한울 42개, 새울 9개 등이 뒤를 이었다. 철근노출뿐 아니라 공극도 다수 발견됐다. 한수원이 가동원전을 대상으로 격납건물 공극을 점검한 결과 원전 16기에서 총 341개 공극이 확인됐다. 공극이 가장 많았던 원전 역시 한빛 원전으로, 304개의 공극이 있었다. 고리(18개), 한울(15개), 새울(4개)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원전에서 발견된 철근노출과 공극은 건설 하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은 "건설 당시 거푸집 설치 불량, 콘크리트 피복 두께 부족 등 시공 관리 미흡으로 철근노출이 발생했다. 공극의 경우 격납건물 내부철관(CLP) 보강재 하부 및 대형 관통부 하부에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미채움 및 다짐부족 등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보수비용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과 보수를 포함해 한수원은 철근노출 보수를 위해 64억원, 공극 보수를 위해 2170억원을 썼다. 한수원은 건전성을 확인한 후 보수를 완료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용 기자

최근 7년간 국내 가동 중인 원전에서 철근노출과 공극 등 1200여개 하자가 발견, 보수에만 22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원전 결함의 원인으로 시공 관리 미흡이 지적되는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 사실은 허중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가동원전 철근노출 및 격납건물 공극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자료에서 2017년 6월부터 지난 달까지 한수원은 원전 25기에서 총 888개의 철근노출을 확인했다. 원전 본부 중 가장 문제가 된 건 한빛 원전이다. 한빛의 경우 철근노출 건수가 457개로 절반 이상이다.

## 대구시 하수도 노후화율 74.0% 전국 1위

전국적 상수도 노후화 연간 6억7000톤 '누수' 손실 누수액 약 6900억

대구시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적으로 상수도 노후화로 연간 6억7000톤의 물이 새다. 손실 누수액은 약 6900억원 가량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기준 전국 상수도 통계에서 드러났다.

통계에서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상수도의 경우 서울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다. 하수도는 대구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통상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

한 수도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20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이다.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도 갈수록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수도가 노후화될 경우에는 관로가 막혀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오래된 하수관로의 균열로 누수 및 침수가 발생, 지반침하(싱크홀)를 유발하게 된다. 최근 서울 및 대구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도 노후화된 하수관의 손상이 원인이었다.

올해 사고원인별 싱크홀 비율을 살펴보면 △하수관 손상 43.9% △다짐 불량 20.5% △상수관 손상 14.7% △굴착공사 부실 12.2% 순으로 높았다.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 전력선, 가스관 등 도시 기반시설이 파손,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용되는 교통 통제 등 경제적 손실이 유발된다. 결국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月刊 정치와 사람 골독자들 결으로 !

# 22대 국회 첫 국감 일주일... 재탕·삼탕 민생 국감 실종

야, 김 여사 의혹 집중 공략... "제2국정농단" 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거둬 제기하며 맞불 남은 국감 기간에도 여야 정쟁은 계속될 듯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지 일주일이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진 건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 공방뿐이었다.

이마저도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 이슈를 재탕·삼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처음에 약속했던 민생 국감은 뒤로 밀리고 정쟁만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지난 7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연일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핵심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다.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고리로 이를 '제2 국정농단 사태'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지속하는 중이다.

명씨를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씨에 빗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여당은 이를 정쟁용으로 보고 있다. 명씨의 과장된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인사청문회 발언과 관련한 여야 논쟁으로 정화되고 있다.

여당은 명씨를 '협잡꾼 정치 브로커'라고 비판하면서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당 지도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추진 중이다.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씨, 김대남씨 같은 협잡꾼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 치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셨을 것"이라며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라고 비

판했다. 반대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는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안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가 도마에 올랐고,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지사 사직 지역화해 운영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1월 흥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헬기를 이용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문제도 재차 언급됐다.

이런 논란들 역시 새로운 내용을 찾기 어렵고, 기존에 한 번씩 거론됐던 사안들이다. 새달 예정된 이 대표의 공식선 거점·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총공세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지형을 조성하고자 의혹 재생산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야 모두 상대방에 대해 '정치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진흙탕 대결 구도가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양당은 김 여사 및 이 대표와 연관된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 등을 두고도 크고 작은 충돌을 계속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정치라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의제들을 다루고, 이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살피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도 "국감은 정쟁 요소를 제쳐놓고 가장 어려운 부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올해 교사 19명 스스로 '목숨' 끊었다

더 민주 진선미, 교육부 10년간 교원 자살 현황 2021~2023 3년간 매년 20명대 숨져... 순직 인정 여전히 야박... 작년 33% 같은 기간 일반직공무원 42%, 67% 각각 인정...

올해 8월말까지 교사 1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초등학교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25명이었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이렇게 숨진 교사가 매년 20명을 넘었다.

과도한 업무와 교권침해가 원인일 수 있으나, 당국의 순직 인정 비율은 여전히 낮아 개선 요구가 계속된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의 '최근 10년 간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총 168명의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 중 초등학교 교사가 86명(51.2%)으로 절반을 넘었고 고교 46명(27.4%), 중학교가 36명(21.4%) 등이었다.

2015년 11명, 2016년 4명, 2017년 9명 등을 보여 왔지만 2018년 19명으로 2배 이상 많아졌다.

이후 2019년 17명, 2020년 19명이 스스로 생을 버렸다.

2021년에는 25명, 2022년 20명, 지난해 25명 등 3년 동안 매년 20명대였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에서 12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5명의 교사가 숨졌다.

올해 1-8월에는 고등학교에서 7명,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6명이 목숨을 끊었다.

서초 사건 이후 목숨을 끊는 교사들도 순직을 인정 받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계 요구가 높다.

지난해 7월 숨진 서초교 교사도 생전에 문제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은 일이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받아 들었다.



진선미 의원

진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2020~2024년 직종별 공무원 사망·순직 신청 및 승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숨진 교사 9명의 유족 등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이 중 3명(33%)만 승인이 됐다.

이는 소방(83%), 일반직(64%), 경찰(60%)보다 낮다. 전체 평균(6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전년도에는 17%에 불과했다.

사망 교사들의 연간 순직 승인율은 2020년 38%, 2021년 17%, 2022년 27%, 2023년 17%로 다른 직종에 비해 유독 낮다.

같은 기간 일반직은 2020년 43%, 2021년 52%, 2022년 60%, 2023년 43% 등 순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 중에서 4명만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승인은 2명(50%)이었다.

전년도의 33%(3명 중 1명)보다는 높았지만, 소방(100%)·일반직 및 경찰(각각 67%)과 견주면 낮은 수치였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서초 사건 이후 유족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 인사혁신처는 교사 출신 조사관을 참여시켰다.

다만 개선 노력이 계속되고 더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진 의원은 "순직 인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학교 업무, 학생 민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3·0대 도박중독 환자 5년 새 2.3배 증가

남성, 여성의 28배 ↑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차단 조치 필요



박희승 의원

20·30대 도박 중독 환자가 5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도박 중독도 증가세를 보였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18년 836명에서 지난해 1957명으로 5년 새 2.3배 늘었다.

10대 도박 중독 환자도 2018년 64명에서 지난해 165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 올해 2030세대 도박 중독 환자 수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68명이었지만, 남성은 이보다 27.8배 많은 1889명으로 집계됐다.

젊은 층의 도박 중독 환자 증가는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고 스포츠 콘텐트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도투와 사다리, 달팽이, 훌쩍 등 실시간 배팅 게임 이용자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프라인 홀더펍과 카지노 관광도 청년들의 도박 중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30세대 사이버도박 피의자 수는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70.5%보다 16.3%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10대는 2.2%에서 3.1%로, 50대는 7.7%에서 15.6%로, 60대 이상은 1.5%에서 7.9%로 증가폭이 컸다.

박희승 의원은 "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나서서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며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형·성형외과 개원 넘칠때 소아과 폐업 줄이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건보공단 자료분석 결과 의원급 정형외과 2019년 2173→7월 2645곳 늘고 소아청소년과 2228곳서 2182곳...46곳 폐업 했다

전국에 정형외과(의원급)가 최근 5년 사이 472개소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했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도 있지만 소위 돈이 안 되는 진료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개와 비교하면 472개소 늘었다.

정형외과와 함께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성형외과는 7월 1183개소로 2019년(1011개소)보다 172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개소 늘어난 1742개소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2729개소)도 2019년(2525개소)보다 204개

소 증가했다. 반면 필수 의료 과목인 일반외과는 올해 7월 1059개소로 2019년(993개소)보다 66개소 늘어나는 데 그쳤다. 흉부외과는 60개소로 5년 전인 2019년(51개소)보다 겨우 9개소 늘었다. 소아청소년과는 2182개소로 2019년(2228개소)보다 오히려 46개소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2159개소, 2021년 2115개소로 각각 전년보다 3.1%, 2.0% 줄었다. 이후 2022년 2137개소, 지난해 2155개소에 이어 올해 2182개소까지 늘었지만, 증가 폭도 0.8~1.3%로 다른 과보다 현저히 둔화했다.

급여매출액(총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또한 필수 의료 과목보다 인기 과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비급여매출액은 제외됐다. 올해 1~7월 소아청소년과 2182개소에서 벌어들인 급여매출액은 6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단순 계산으로 나눠보면 1곳당 평균 급여매출액은 2억8400만원 수준이다. 일반외과는 1059개소에서 495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올렸다. 평균 급여매출액은 한 곳당 4억6700만원이다. 흉부외과 60곳의 급여매출액은 240억원이었다. 한 곳당 평균 4억원꼴이다. 반면 같은 기간 안과는 1742개소에서 총 1조491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기록했다.

의원 한 곳당 평균 8억5600만원을 번 셈이다.

정형외과 2645곳의 급여매출액은 1조7912억원으로 1곳당 평균 6억7700만원을 찍었다. 성형외과 1183개소의 급여매출액은 378억원에 그쳤지만, 이는 진료과목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목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미성년자 자해·자살 시도 5년간 38% 증가

최보윤, 복지부 자료 분석 여자 미성년자 전체 환자 77.5% 차지... 심각한 문제

최근 5년간 자살과 자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미성년자가 38% 증가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살 또는 자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9년 4620건에서 지난해 6395건으로 약 38.4% 늘었다.



최보윤 의원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620건, 2020년 4473건, 2021년 5486건, 2022년 5894건, 지난해 639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여성 미성년자의 경우 매년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여성 미성년자 환자가 전체 환자의 77.5%를 차지했다.

최보윤 의원은 "매년 아동·청소년들의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여성 아동·청소년의 내원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 세밀한 맞춤형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

정형외과와 함께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성형외과는 7월 1183개소로 2019년(1011개소)보다 172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개소 늘어난 1742개소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2729개소)도 2019년(2525개소)보다 204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송·고령·칠곡군 0원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  
결손대응 빨간불 켜져  
작년 기준 기금조성액  
대구 7937억 전국 5위

전국 지자체 중 13곳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 자금이 0원이다.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할 경우 이들 지자체 재정 운용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이 사실은 국회 행안위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 현황'에서 확인됐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2020년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기금 설치는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도입 첫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1346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금은 2021년 20조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원(219곳), 2023년 30조7769억원(230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5조98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 9776억원, 경



7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양부남 의원실 제공)

기 9730억원, 제주 7991억원, 대구 7937억원, 세종 4127억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는 기금이 아예 없거나 조성액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이다. 서울 중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이다.

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지자체도 7곳이었다. 강원 속초시(100만원), 충남 서산시(1300만원), 전남 영광군(6300만원), 전남 장흥군(7300만원), 울산 남구(1억8400만원), 부산 북구(6억2000만원), 인천 부평구(9억9000만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강행 규정 은 아닌 데다 해당 지자체의 경우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예

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부문의 경우 국고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 수입(337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와 연동해 지자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세수 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한다면 여유 자금이 없거나 미미한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아직 정부는 정확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에서 세수 추계를 계속 세밀하게 하고 있고, 각종 기금 운용 상황이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자체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량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양부남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뇌물·사기에 특수상해까지... 건보공단 왜 이러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  
5년간 22명 수사 받아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뇌물, 사기, 특수상해 등의 비위 행위로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총 22건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징역 15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 받은 직원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건보공단 직원들이 받은 징계 건수는 137건이다. 지난달까지 포함하면 139건으로 늘어난다.

이 중 16.1%인 22건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지난해 4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건수는 총 4건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뇌물(수수)은 3건이었다.

특수상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운전자 폭행, 범죄수익 은닉, 범인도피, 사기 혐의 등으

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22건 중 8건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벌금형은 4건이었다. 혐의없음은 5건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4~9월 건보공단에서 재정을 관리하던 A씨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그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수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수입 지출 예산이 연 100조원 안팎으로 많은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와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서 구조적, 고질적인 각종 비위 행위 등에 대해 실효를 파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

## 새마을금고 말로만 경영혁신 외쳐...

위성곤, 새마을금고 이상한 공시  
재무상태표 항목 반 이상 줄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시하는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갯수가 작년부터 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재무제표 자료들도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의 소극적인 정보 공개에도 행정안전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받은 2023년 결산 경영공시 자료를 보면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주식이 모두 빠져있다.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유출·유입 현황을 알 수 있는 재무제표로 기업의 유동성과 지급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 자본의 변동 상황을 기록한 자본변동표와 계정과목을 상세히 분석해서 기술한 주석 역시 자금 조달과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재무제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는 금고와 중앙회가 공개하는

경영공시 자료에 이 같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회의 공시 자료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세 자료들이 모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처럼 다른 협동조합 중앙회들이 공개하는 공시자료 수준과 맞먹기 때문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등에서도 누리집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회계 감사보고서 정도"라며 "공개하지 않은 재무제표들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한번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회가 누리집에 공시한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갯수도 작년부터 대폭 줄었다. 2022년 결산 경영공시(제50기) 자료를 보면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갯수는 총 90개였으나 2023년 공시(제51기) 자료에서는 40개로 반 이상 감소했다. 예를 들어 현금및예치금 가운데 자기앞수표, 은행정기예금이 사라지고 주식형수익증권·채권형수익증권·주식·국채·금융채·특수채 등 유가증권의 세부 항목들도 2023년 계정과목에서는 삭제됐다.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을 비롯해 총 5개에 이르는 책임준비금 관련 계정과목도 모두 지우고 '책임준비금'으로 통합해 명시해놨다. 행안부는 "불필요하게 세부적으로 분류한 걸 통합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 농진청, 연구장비 10대 중 4대 노후화...

연구장비 노후화율 2019년  
37.5%→2023년 44% 늘어나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10대 중 4대가 노후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진청이 수행하는 연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후장비 교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농진청 소속 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의 노후화율은 43.8%에 달했다. 연구장비의 노후화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후



정희용 의원

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전체 보유장비 1721대 중 사용연수 10년 이상의 노후장비 대수는 645대로 노후화율은 37.5%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1841대 중 810대가 노후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화율은 44% 수준이다. 올해 9월 기준 노후화율은 43.8%로 2019년 대비 6.3% 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연구장비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원예특작과학원(44.2%)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식량과학원(43.8%), 축산과학원(43.2%), 농업과학원(42.3%) 순이었다. 내용연수 기한을 초과하는 장비 현황도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96대 △2020년 83대 △2021년 110대 △2022년 120대 △2023년 107대 등이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11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원은지, 경찰 딥페이크 5년간 수사 방관...

'N번방' 추적 원은지,  
경찰청 국정감사 출석

2019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원은지 추적단 불꽃 대표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소극적 수사를 지적하며 울먹였다.

조지호(사진) 경찰청장은 성인 성착취물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대표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5년 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제보받았는데 경찰 수사관이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가 어려우니 피해를 사제라도 하자'고 했다.

5년이 흘렀는데도 수사기관은 같은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관을 만날 때마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 물었는데 모두 '검거되는 것'이라 말했다"며 "그걸 아는 분들이 왜 그랬나. 수사 반려 기간이 5년이 넘었다. 범죄를 방관했던 걸 범죄자들도 안다"고 말했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아 가림막 뒤에서 발언하던 원 대표

는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울먹였다.

조 청장은 "텔레그램은 수사가 어려워 위장수사를 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성인 성착취물은 위장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성인 성착취물도 위장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터달라. 경찰이 열심히 하는 건제가 책임질 테니 제도적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는 2021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식 도입됐다. 경찰이 텔레그램 음란물 유통채널방에 '경찰이 아닌 척' 잠입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최근 성인을 대상으로도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대책 검토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

조 청장은 최근 텔레그램에 딥페이크 피의자에 대한 계정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텔레그램을 계속 압박했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다.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고 강조했다.

국감에는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 이모씨도 출석해 교체폭력 사건 신고했을 때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30대 남성 살모씨가 지난해 7월 범인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여친 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 열차운행...작년 '탈선 20건·철도사고 68건'

안태준의원, 사고 증가  
피해액도 쑥...복구지원

대전 철도공사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원회의 코레일과 철도공단, 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태준 의원은 탈선 사고와 사상자 발생 등 열차운행 안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사진)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50건의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건이 지난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다"며 "특히 최근에는 예년에 비해 피해 금액과 복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고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탑승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태준 의원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열차탈선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0건의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승객을 태운 열차탈선은 15건이, 차량탈선은 3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건 △2021년 9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올해 8월 4건 등이다. 열차탈선에 따른 피해액도 꾸준히 늘어나 같은 기간 1억6240만원, 7480만원, 19억3370만원, 32억1040만원 등 최근 5년 새 대폭 증가했다.



안태준 의원

경북소방본부 · 전남 의용소방대 연합회 상생협력 화합행사

경북소방본부는 11일 도청 동라관에서 경북·전남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 화합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영·호남 의용소방대 상호교류를 통한 지

방시대 안전 문화를 선도하고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환영식을 시작으로 감사패 증정, 안아드림 페스티벌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또 전남의용소방대 연합

회장과 함께 교감동서 화합을 다지고 안아드림·페스티벌을 함께 관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상생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전남의용소방대 연합회는 2022년 태풍 한남노와 지난해 7월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포항과 예천지역을 방문, 복구 활동을 했다.



2024 제10회 대구청년주간 Powerful Youth, Youthful Daegu



청년 열기 장악 '청년굴기' 동성로서 올려피졌다

화려한 개막식, 청년가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인기 2024 대구청년주간 청년에게 꿈 희망 잃어버린 열정 되찾아 청년 꿈 펼쳐는 다양한 장 마련

대구시가 마련한 '2024 대구청년주간'이 막 내렸다.

10주년 행사는 11~13일 까지 동성로에서 열렸는데 7만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개막식, 공연 및 문화행사, 대구청년가요제, 부스존, 교류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돼 많은 시민과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졌다.

개막식에는 여러 내빈과 청년대표가 동성로에 주초석을 세우는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비와이 축하공연, 대구 예술가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가을밤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비와이는 뜨거운 열기에 앙코르 공연을 이어가며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많은 인파 속에서도 안전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축제를 즐기는 시민의식이 돋보였다.

총상금 1800만 원이 걸려있는 대구청년가요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353팀이 신청해 시작 전부터 큰 관심을 모으며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진행됐다.

대상 수상자는 상금 1000만 원과 음원 제작 기회를 얻어 청년들의 꿈과 희

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교류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2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대구에 모여 청년 문화를 공유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3일간의 행사 동안 청년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진 '2024 대구청년주간'은 청년들이 제안한 결과물로 시에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2024 대구청년주간은 지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는 시간이 됐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행안부 행정통합 중재안 홍준표 받아들이는가?

이철우 경북지사, 대구·경북 통합역사적 '여정' 중단없이 계속돼야 행안부 새 조정 중재안 의미 깊다 홍준표 대구시장, 중재안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내용 봐야 여론남겨

백지화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군권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의 역사적 여정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그 큰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조정 중재안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공동 추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최근 추진 상황과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도는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계속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재를 요청해 왔다.

그러한 과정과 노력 차원에서 최근 한 달여간 4개 기관 간의 중재조정 협의의 계속해 왔다.

도는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권한의 이양과 재정의 보장, 시군의 권한과 자율성의 유지 강화라는 통합의 기본 방향을 지키면서도 대구·경북 모두가 수용할 통합방안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이성오 시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해 "중재안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내용을 봐야 한다"며 "(중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다음 주쯤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iM뱅크, 창립 57주년 기념 서울서 'iM푸드트럭' 운영

시중은행 전환 후 첫 창립기념 서울서 iM뱅크 랩핑 트럭 눈길



iM뱅크가 창립 57주년 기념, 서울서 'iM푸드트럭'을 운영했다.

시중은행 전환 후 처음 맞이하는 2024 창립기념일 행사다.

iM뱅크는 수도권 영업 활성화 및 보다 많은 고객들과 만나기 위한 iM푸드트럭을 운영했다.

iM푸드트럭 'EAT's Go!'는 움직이는 이동 카페로 음료와 간단한 간식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역의 행사 명소나 주요 거처 등에서 운영돼 고객 편의를 제고, 올해 10월 창립기념일을 맞아 서울에서 78일 이틀간 고객들을 만났다.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아이엠뱅크)의

새로운 사명과 리뉴얼된 로고의 주요 컬러인 민트로 랩핑한 iM푸드트럭 'EAT's Go!'는 움직이는 홍보 트럭으로 보다 넓은 고객들과 만나고자 다양한 지역을 찾고 있다.

수도권에서 첫 진행된 금번 프로모션은 서울 주요 오피스 상권에서 운영돼 새로운 iM뱅크(아이엠뱅크)를 알리고, 'iM your friend iM뱅크 - 이거 마시면 우리, 5래5래 7구하는 거다'라는 콘셉트로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했다.

창립기념일 당일인 지난 7일에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iM금융센터에서, 8일에는 태평로 서울마당에서 iM푸드트럭 'EAT's Go!'가 운영됐다.

iM뱅크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등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와 음료, iM뱅크 캐릭터인 단디와 똑디 등 그림책 굿즈를 증정, iM뱅크를 홍보했다.

iM뱅크 관계자는 "맛있는 음료와 간식처럼 일상에 활력을 주는 iM뱅크가 되고자 iM푸드트럭 'EAT's Go!'를 운영, 장소와 시기에 맞는 다양한 콘셉트로 단순 홍보 이상의 고객과의 소통을 이어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고객과 자주 만날 수 있는 iM푸드트럭 'EAT's Go!'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선희, 최고의 '賞' 청렴인賞 받았다

청렴문화 확산공로 인정 투명 책임있는 정치문화 만들어 가는데 앞장선다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청렴인상'을 수상했다

경북도의회가 부패방지지와 부패방지 노력의 결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의회 중 1등급 달성에 이은 쾌거다.

'청렴인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및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 수여한다.

이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10일 지역사회 내 청렴성과 투명성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식 제고와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직무관련 부패방지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던 점이 크게 한 몫했다.

이 위원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 경북도와 교육

청 전체 예산을 총괄한다. 그는 명확한 청렴성을 바탕으로 특정 이익집단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예산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배분과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부패방지는 물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후반기에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선출, 확고한 청렴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관련된 예산 및 재정 정책을 투명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재정 정책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확인으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견제와 감시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위탁 사업 수행,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부적절한 계약관행을 바로잡았다.

기관의 장기비전 부재 등 책임감 없는 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변화와 혁신적 경영마인드로 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결국 도민의 혈세로 모아진 예산이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청렴, 애민, 근면, 공정을 들면서도 그 으뜸을 청렴으로 꼽았던 것은 부패와 사리사욕을 경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받을 것임을 경고했던 것으로 늘 가슴에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에 뿌리를 둔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상을 받았지만 사익이 아니라 오직 공익을 우선하는 청렴한 마음으로 일해온 것을 이번 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면서 책임감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청렴과 공정을 바탕으로 주민을 섬기고, 더 나아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 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성용 기자

대구근대역사관, 장진홍 의사 발자취 답사

조선은행 대구지점 현재 모습 살펴보는 걸로 답사 마무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 소속 대구근대역사관은 대구 독립운동사에 의미 있는 날인 오는 18일 '장진홍 의사 의열투쟁 발자취'라는 주제로 답사를 진행한다.

대구근대역사관에 따르면 장진홍(1895~

1930) 의사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시도의 거일을 기념해 1920년대 뜨거웠던 대구의 의열투쟁 현장을 답사하는 열린 역사문화 강좌를 개최한다.

장진홍 의거 관련 현장을 비롯해 1920년대의 열투쟁과 관련된 시인 이육사(1904~1944)와 의열단 부단장 이종암(1896~1930) 관련 현장도 함께 답사한다.

김영원 기자

대구교육청, 수시모집 면접 대응력 강화

2025 대입수시모집 대비 제시문 '면접 교실' 운영

대구교육청은 2025 대입 수시모집 대비 '제시문 면접 교실'을 운영한다.

면접교실은 12일과 19일 경북대학교사범대

부설교에서 열린다. 대상은 수시모집에 지원한 희망 학생 111명이다.

'제시문 면접'은 지원자가 주어진 제시문의 주제와 요점을 파악한 후 교육과정의 주요 개념들과 연결하여 답변할 수 있는지를 확인, 전공적성과 학업능력 및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면접 유형을 말한다. 면접 교실은 제시문 면접 지원단

과 진학 전문교사로 구성된 14명의 강사진이 12일 제시문 면접 출제경향과 기출 및 예상 문제 중심으로 특강을 한다.

19일은 개인별 맞춤형 모의 면접 후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면접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된다. 주요 대학의 제시문 면접 관련 내용과 지난해 합격자의 면접 경험 사례 등을 분석해서 개발한 '개별별 예시 문항 자료집'을 제공해 학생들의 면접 준비를 지원한다. 황태용 기자

제20회 골굴사 전통무예대회

제20회 골굴사 전통무예대회가 오는 19일 경주 골굴사에서 막을 내린다. 대회는 특별히 제6회 한일 전통무예인 교류대회와 함께 열린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 무예인들

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무예 동작을 시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에서 선무도, 기전문, 태권, 정도술, 당수도, 24반무예 등 한국의 다양한 전통 무예가 시

연된다. 일본은 가라테, 한무도, ITF 태권도의 시범이 펼쳐져 한일 간 무예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대회는 각 무예 단체장들이 수십 년간, 혹은 평생을 헌신해온 전통무예의 열정과 그들의 노력으로 지켜온 무예의 역동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는 한마음... 36회 경주시민 체육대회 막올라

새달 2일... 화합 재미 종목 선정 휴일 개최 많은 시민 참가 예정

스포츠를 통한 화합의 장인 제36회 경주시민 체육대회가 새달 2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다.

대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스포츠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 개최되는 뜻깊은 대회인 만큼 철저한 준비로 시민들에게 치유와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경기력 위주의 종목 운영을 지양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피로 풀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하여 함께 모여 놀거나 운동 따위를 즐기는 일) 위주로 진행된다.

휴일 개최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참가해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 행사를 구성해 축제 분위기를 만든다.

대회장 인근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입장식은 선수단을 제외하고 기수단 및 내빈으로 입장으로 대체한다.

시민체전은 당일 토함산에서 경기를 알리는 채화를 시작으로 선수·시민 등 1만 여명이 참가해 스피드경기 3종목 △필드경기 3종목 △번외경기 1종목 등 총 7종목으로 펼쳐진다.

트랙종목은 대형바통(3인) 400MR, 3인2각 보드레이스 400MR, 화합달리기 400MR를 진행해 경쟁 보다는 화합·재미 위주의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필드에서는 단체 줄넘기(여 7명), 어르신 공굴리기 120MR, 한궁 게임이 실시된다.

번외경기로 진행되는 OX퀴즈는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부별 편성은 23개 읍면동을 인구 규모에 따라 무열부(8), 문무부(7), 흥무부(8) 총 3개 부로 구분된다.

시상은 종합 1·2·3위와 부별 1·2·3위, 응원상, 모범상 등이 수여된다.



사진은 2022년 제35회 시민체전 필드경기 중 어르신 공굴리기 하는 모습

환경미화원 5명 신규 채용

경주시는 환경미화원 5명을 신규 채용한다. 채용은 경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학력과 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25%) △2차 실기(체력)심사(45%) △3차 인적성검사(20%) △4차 면접(10%)이다.

접수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이다.

응시원서는 경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받아 작성 후 자원순환과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해야 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상반기 임용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누리집 또는 자원순환과(054-779-6693)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 경청 워크넷 워크숍

경주시는 지난 1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경청 워크넷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넷은 워크(Work)와 네트워크(Network)의 합성어로 함께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행사에는 경주시, 경주시의회,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경주시청년센터 등의 기관 관계자와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 교수 및 학생들, 경주 소재 창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먼저 총 6개 조로 편성돼 지역 활성화, 관광 지원, 청년 지원, APEC 정상회의에 대해 주제별 토론을 진행하며 의견을 나눴다.

경주시, APEC 페루-경주 사진전... 문화 교류의 장

페루 잉카 문명부터 경주 유적까지 한 자리서 만나

경주시가 주관 페루대사관, 동국대 WISE캠퍼스와 공동으로 '2024 APEC 페루 - 2025 APEC 경주 사진전을 개최했다.

경주 투자유치 '일취월장' 원전 산업 중심지 도약

원전 핵심 설비 강소기업 300억 원 규모 MOU 체결

경주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이 지난 8월 완성차 협력사인 ㈜대성사와의 1100억 원 투자유치 MOU에 이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청사 내 대외협력실에서 원전 핵심 설비 강소기업인 수산인더스트리·수산이앤에스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한봉섭 수산인더스트리·수산이앤에스 대표이사, 황중하 경북도 투자유치담당, 임동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MOU 체결에 따라 수산인더스트리·수산이앤에스는 경주 명계3 일반산업단지 2028년까지 약 300억 원을 투자한다.

지역 내 상시 고용 인원은 3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11일 개막을 시작으로, 새달 30일까지 '페루에서 경주로의 여정'을 주제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전시가 진행된다.

사진전에서는 페루의 잉카문명과 자연경관, 그리고 경주의 유적지를 담은 사진 작품들이 선보인다.

가을철 악취 잡는다... 은행나무 열매 사전 채취

10월 한 달 장비 첫 도입 6천만 투입 488그루 채취

경주시가 가을 불청객으로 불리는 은행나무 열매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굴삭기에 부착한 진동수확기를 이용해 첫 도입해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에 돌입한다.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채취해 악취를 제거하고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업에는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나무마다 익는 시기가 달라 한 나무당 채취 횟수는 2회다.

진동수확장비는 나무에 진동을 주어 열매를 한번에 떨어뜨릴 수 있어 작업 속도가 빠르다. 작업 대상은 동천, 황성, 용강, 충효의 주거밀

집 지역과 통일전 주변 은행나무 암그루 등 총 488그루이다.

매년 가로수 관리원들이 은행나무 열매가 익은 후 직접 장대를 들고 제거함에 따라 작업 속도가 더디고 각종 사고 우려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을철 악취 잡는다... 은행나무 열매 사전 채취

10월 한 달 장비 첫 도입 6천만 투입 488그루 채취

경주시가 가을 불청객으로 불리는 은행나무 열매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굴삭기에 부착한 진동수확기를 이용해 첫 도입해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에 돌입한다.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채취해 악취를 제거하고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업에는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나무마다 익는 시기가 달라 한 나무당 채취 횟수는 2회다.

진동수확장비는 나무에 진동을 주어 열매를 한번에 떨어뜨릴 수 있어 작업 속도가 빠르다. 작업 대상은 동천, 황성, 용강, 충효의 주거밀

앞두고 경주와 페루 간 문화 교류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류완하 총장은 "한국과 페루의 유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라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사진전은 아시아와 남미의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가을철 악취 잡는다... 은행나무 열매 사전 채취

10월 한 달 장비 첫 도입 6천만 투입 488그루 채취

경주시가 가을 불청객으로 불리는 은행나무 열매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굴삭기에 부착한 진동수확기를 이용해 첫 도입해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에 돌입한다.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채취해 악취를 제거하고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업에는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나무마다 익는 시기가 달라 한 나무당 채취 횟수는 2회다.

진동수확장비는 나무에 진동을 주어 열매를 한번에 떨어뜨릴 수 있어 작업 속도가 빠르다. 작업 대상은 동천, 황성, 용강, 충효의 주거밀

집 지역과 통일전 주변 은행나무 암그루 등 총 488그루이다.

매년 가로수 관리원들이 은행나무 열매가 익은 후 직접 장대를 들고 제거함에 따라 작업 속도가 더디고 각종 사고 우려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때문에 시는 진동수확기 작업의 효율성과 시민 통행량, 민원 발생지역 등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는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때문에 시는 진동수확기 작업의 효율성과 시민 통행량, 민원 발생지역 등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는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A large banner for the 2025 APEC Summit in Gyeongju. It features the APEC logo, the text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2025 APEC Summit in Gyeongju), and a colorful graphic of the number '15' representing the 15th anniversary of the summit. The banner also includes the slogan '가장 한국적인 도시' (The most Korean city) and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Now Gyeongju will be remembered by the world beyond South Korea).

### 예천군 (주)천신지퍼, 고향 기부금 전달

예천군은 지난 11일 (주)천신지퍼 서중수 대표가 군청을 방문해 500만원을 예천에 전달했다. 서중수 회장은 공공면 향서리 출신으로, 현재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지퍼와 슬라이더 제

품을 연구하는 (주)천신지퍼의 대표로 있으면서 예천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오고 있다. 서 회장은 지난해에도 예천사랑기부금으로

500만 원을 기부해 2년 연속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몸은 고향에서 멀리 있지만, 마음은 늘 고향을 사랑하고 있다.”며 남다른 애정심을 표현했고, “예천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 “울진 소상공인 실질적 대책 마련 최선”

소상공인 특례보증 계획  
골목상권 매출 증대 기여  
관내 전통시장 시설 보수

상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대상지는 상주시 이안면 구미리 등 5개리 일원으로서 지평천, 두곡천 및 세천 3개소가 위치한 지평지구이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하천, 급경사지, 소규모공공시설 등 단위시설별로 시행하던 재해예방사업을 단위시설별 재해발생 유형을 종합적으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연재난에 따른 모든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주시는 철저한 현장답사와 자료준비를 통해 경상북도(1~2차 사전심사)와 행정안전부 심사(3차 최종심사)에 대비함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데 주



력했다. 지난 7월 22일 적극적으로 강영석 상주시장

이 직접 기재부를 방문해 사업선정을 호소했고 관계 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를 방문

해 건의하는 등 사업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여기에 더해 지역구 임이자 국회의원도 공모 초기부터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을 경청하고 관계 부처와 소통하는 등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탰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 급경사지 사면보강, 토석류 유입방지시설, 세천정비 및 교량재가설 등이 포함된 종합 정비사업으로 국비 208억원, 도비 62억원을 포함해 총 416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해예방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음은 물론,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강영석 시장은 “우리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금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주시가 더욱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상주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 영덕,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총력

내년 2월까지 방지기간 운영  
영덕울진축협 공동방제단 투입

영덕군은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차량과 조사

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권역의 가축 분뇨 차량 이동 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축산농가에 고시하고, 군 방역 차량과 영덕울진축협 공동방제단 2개 반을 투입해 양돈농장 및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장 인근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영덕군은 최근 전국에 걸쳐 국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렙티스킨(LSD)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관내 미접종 송아지를 대상으로 렙피

스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구제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달 2주간 소와 염소 사육 농가의 전두수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을 일제히 접종하는 등 사전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황대식 농촌지원과장은 “가축전염병은 겨울철에 강한 확산력을 가진 만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관리해야 한



다”며,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들은 농장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방문 전 대안·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에 협조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은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 영양군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영양군은 대규모 도시아파트 대상 전략적 통합마케팅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강화를 위해 12일 울산광역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함께 “영양군 도농상생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개최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도농상생 영양군 농특산물 직거래 공급 업무협약”을 맺은 영양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도농상생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직거래 행사는 영양군 유통지원과가 총괄하고 산림복지과 통합마케팅 추진과 연계하며 시행하였으며, 로컬푸드직매장, 영양고추유통공사, 관내 농업인이 견고추, 고춧가루, 양봉 및 나물류 등 25여 품목의 우수한 농특산물로 울산광역시 아파트 소비자를 공략했다.

울이연합회는 “울산광역시에서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관측행사를 추진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울이연합회는 도농상생을 통한 영양군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군수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도농상생 직거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임길홍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아울러, 울산광역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라며 “영양군은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통합마케팅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이연과의 파트너십도 적극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동 기자

### 청송군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 폐회

치유농업 육성 · 지원 심의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청송군의회의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의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조례안으로 △청송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청송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조진걸 의원, 감사에는 박신영 의원이 선임됐다.

2차 본회의에서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했다.

심상휴 의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안전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준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다음 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하고 성실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 영덕문화관광재단, 오페라 ‘라보엠’ 공연 성료

합창단 포함 100명 출연진  
주인공 소프라노 최영신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지난 9일,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푸치니의 정통 오페라 라보엠을 성황리에 공연했다.

오페라 라보엠은 올해 서거 100주년을 맞아 이탈리아 대표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작품 중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로 손꼽힌다.

19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꿈과 사랑으로 충만한 젊은 예술가의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담아낸 작품이다. 조여은 기자

로맨틱한 선율과 극적인 구성을 갖춘 라보엠은 브로드웨이 인기 뮤지컬 ‘렌트’의 원작으로 한국 관객에게도 잘 알려졌다.

이번 영덕 공연에는 지휘자 박해원이 이끄는 아르텔필하모니오케스트라, 워너오페라합창단, 브릴란테 어린이 합창단 포함, 100명의 출연진이 대극장 무대에 올라 웅장하고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했고 600여 관객을 가득 채운 관객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배역진도 주인공 미미 역에 소프라노 최영신, 로돌프 역에 테너 김지민 등 실력 있는 성악가들이 출연해 섬세하고 풍부한 음색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조여은 기자

### 울진 전국 서핑대회 & 코리아 오픈 개최

전국서 선수 등 200여명 참가  
일반인 비기너 이벤트 마련

울진군은 12일부터 2일간 후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제2회 울진 전국 서핑대회 & 코리아 오픈을 개최했다.

대한서핑협회, 울진군서핑협회, 남울진청년회의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숏보드, 롱보드, SUP 종목으로 진행되며, 날씨 관계로 정상적인 경기진행이 되지 않을 시 패들링 경기로 대체하고 코리아오픈 접수는 반영되지 않는다.

올해로 2번째인 울진 전국서핑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선수 및 임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인을 위한 비기너 이벤트도 마련되어 서핑초심자와 관광객들의 흥미를 이

끌어냈다. 코리아오픈으로도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대한서핑협회에서 국내 서핑 우수선수 발굴을 통한 국제적 선수 양성, 서핑 종목의 전문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번 대회에서도 선수들간 포인트 썩기 경쟁을 펼쳤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후포해수욕장은 울진의 대표적인 해양레저 명소 중 한곳으로 파도와 바람의 조건이 서핑에 적합해 전국의 서퍼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이다”라며 “서핑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서핑에 파도를 가르며 즐기는 서핑 매력에 빠져 대한민국의 숲, 울진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은 초미세먼지가 가장 낮아 맑은 공기와 청정한 자연을 배경으로 운동하기 좋은 체육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체육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 이정수 기자

### 청도군, 지자체 공동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활동 펼쳐

2024 청도반시축제 참가  
관광교류협의회 7곳 동참

청도군은 11일부터 13일까지 청도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 청도반시축제와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에 참가해 국내관광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인 청도군, 대구 중구, 목포시, 강진군, 청송군, 고령군, 합천군과 공동으로 우수한 관광자원과 관광지를 홍보했다.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는 지난 2015년 3월, 청도군을 포함해 대구 중구, 목포

시, 강진군, 청송군, 고령군, 합천군 등 7개 시군구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관광교류협의회는 7개 시군의 다양한 관광지와 관광명소를 합리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상품과 여행팁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포토부스 운영으로 관심을 유도했다.

청도군은 청도 관광 9경 중심의 대표 관광명소와 군 공식 관광기념품을 홍보하고 문화관광 SNS 구독이벤트를 진행했다. 조여은 기자

###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주간 행사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는 10일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남한권 울릉군수,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및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가졌다. 올해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울릉군이 후원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울릉”이라

는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내용은 각종 부대행사를 시작으로 각 단체회장 소개, 양성평등 유공자 시상, 개회식에 이어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으며, 유공자 표창에는 여성상, 양성평등 부부상,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다.

# 경북

대구광역시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7

## 안동시농기센터, 드론 1종 시험 성과

안동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업인 드론 교육의 훈련생들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무인멀티콥터 1종 시험에 전원 합격했다. 교육생은 안동시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드론

교육사업의 훈련생 10인으로 구성된 드론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진행했고, 최근 전원 최종 합격의 영예를 누렸다. 훈련생들은 농업에 종사하며 바쁜 와중에도

농업인 드론교육을 병행하며 합격의 기쁨을 맛봤다.

1종 무인멀티콥터의 시험은 좌/우측면 호버링, 원주비행, 비상착륙, 정상접근 비행 및 착륙 비행 등 실기 비행과 구술시험으로 이뤄져 있으며, 까다로운 실기 비행에 합격률이 높지 않다.



# 문경 '감홍사과' 우수성 축제로 알린다

19일부터 9일간 문경사과축제 5kg 박스 특별할인 판매 예정 관광객들에 다양한 체험 행사

문경시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에서 오는 19~27일까지 9일간 제19회 문경사과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감홍사과의 고장 문경을 알리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올해는 감홍사과가 익는 시기에 맞춰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감홍사과를 맛볼 수 있으며, 축제 기간 중 판매되는 감홍사과는 매일 당일 측정, 품질확인 절차를 거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문경감홍사과를 5kg 한 박스에 특별할인하여 7만 원에 판매한다.

축제 개막은 감홍사과로 문경농업의 새 시대를 연다는 메시지를 담은 사과 열쇠 퍼포먼스와 이찬원, 박서진, 전유진 등 팬덤 있는 인기가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만들기 체험, 포토존 및 워터 등을 운영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거리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지난해와 다르게 사과축제장을 제1관문 잔디광장으로 옮겨 가족 단위 관광객들



문경시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오는 19~27일까지 9일간 제19회 문경사과축제를 개최한다.

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에어바운스, 시소 등), 대형 에어 그늘막에서 즐기는 사과낚시, 사과양궁, 럭키박스 체험, 파크골프 체험, 사과모자, 사과손수건 만들기 체험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을 마련하였으며, 축제 마지막 날에는 사과나눔 행사와 사과따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경사과 홍보관에는 감홍사과 이야기, 감홍사과 터널, 포토존 및 워터, 사과 품종별 전시, 문경사과 품평회 출품작 전시 등으로 문경 감홍사과의 우수성을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

고, 감홍사과의 주산지로서 명성을 이어나가 고차 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문경새재에 오셔서 사과 중에 가장 맛있는 문경감홍사과 꼭 맛보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영주 선비정신 확립 학술대회

영주시는 부용계가 주관한 '제3회 영주 선비정신 확립 학술대회'가 지난 11일 영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영주 부용계(芙蓉契, 도유사 금춘)는 400여 년 전 영주지역 선비들 중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진사(進士) 27인, 생원(生員) 28인이 모여 만든 부용계(芙蓉契) 55현의 후손 모임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영주 선비정신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영주의 선비정신을 한국의 시대정신으로 확산시키고자 마련됐고, 개회식,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김의환 충북대학교 교수가 '이산서원(伊山書院)의 건립(建立)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이산서원(伊山書院)의 건립 과정과 원규(院規) 제정 △이항(李滉)의 제향·사액 및 이후 서원 건립의 양상에 대해 제1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김자은 공주대학교 교수가 '16세기 소수서원(紹修書院) 교육(教育)의 성격(性格)'이라는 주제로 제2주제 발표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정지아 경북대학교 강사가 '조선시대(朝鮮時代) 소백산산유록(小白山山遊錄)에 대한 고찰(考察)'이라는 주제로 제3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부용계의 정신을 영주의 선비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한 회원분들의 뜻깊은 노력으로 선비도시 영주가 더욱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선비의 고장 영주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 영천시, 서울 한방문화축제 방문 상생 협력

한방산업 발전 방안 논의 하반기 정기총회 함께 개최

영천시는 지난 11일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정기총회 및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의 개막식에 참석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전국의 한방산업 특화 자치단체가 모여 한방산업의 지속가

능한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4월에 출범했다.

이번 방문은 협의회 자치단체의 축제 및 행사 교류의 일환으로 이월형 동대문구청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최기문 영천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한미영 산청 부군수, 황보란 대구 중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별 한방산업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축제 방문과 하반기 정기총회가 함께 개최됐으며, 한방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와 정부정책 건의사항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자문위원회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축제현장에서 한방관련 특산물 공동판매 부스를 운영해 상호 결속을 다지고 의리와 신뢰를 더욱 돈독히 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한방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 현안 발굴 등 5개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 영주시, 풍기인삼 판로 개척 민관 협력

NOHJPRO 안정 공급 지원 소비자 반응 자료 제공 등

영주시는 지난 11일 풍기인삼축제장에서 NOHJPRO 및 풍기인삼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건강 기능성 식품 다양화로 인한 인삼 소비 감소와 산지 인삼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인삼업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영주시와 풍기인삼농협은 NOHJPRO에 인삼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제품의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NOHJPRO는 풍기인삼을 활용한 제품의 홍보와 판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인삼

관련 제품의 판매 실적 및 소비자 반응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NOHJPRO는 올해 풍기인삼연구소의 연구지원으로 풍기인삼을 활용한 샴푸, 바디워시, 미스트 등의 시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북농업기술원 및 풍기인삼농협과 '인삼미용제품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인삼의 소비문화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인삼업계에 새로운 시장개척이 절실하다"며, "K-뷰티 시장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풍기인삼 미용 제품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인삼 소비를 증가시키고 농가소득에 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 봉화군 동물등록대행기관 지정 운영

반려동물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 부착

봉화군은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내에 동물등록대행기관 한곳이 지정되어 동물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소유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군 관내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이 한 곳도 없어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관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군의 동물등록률은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등록방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정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의 신체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등록장치를 부착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군에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반려인들은 마리당 4만 원을 지원받아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에 우리군에도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생겨 반려인들이 관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며 "관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반려동물 등록 동참으로 정부 120대 국정과제인 동시에 시군평가 지표인 반려동물 등록률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 칠곡문화관광재단 인문점빵 팝업스토어 운영

내달까지 수공예품 등 판매 천연염색 제품 등 제품 전시

칠곡문화관광재단은 인문점빵 1호점을 이용해 다양한 지역예술인들의 수공예 작품을 선보이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2일 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새로운 상점들이 참여해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수공예품과 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인문점빵을 이용한 팝업스토어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객을 맞이한다.

의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인문점빵은 매주 1개의 문화상점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작품을 판매한다. 김재욱 재단이사장은 "이번 인문점빵 팝업스토어는 지역 내 창작자들이 문화도시 거점공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지역 내 문화활동가들을 만나보고 창의성을 느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문점빵을 이용한 팝업스토어는 지역 내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지역 주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에게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창작자들

## 상주농업대학 '농업마케팅과' 38명 수료식

총 26회 연간 108시간 교육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습 학생회장 고희호 '공로상'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 대강당에서 2024학년도 제18기 상주농업대학 '농업마케팅과' 수료식을 개최했다.

상주농업대학 학장인 강영석 시장 외 수료생 가족 및 관계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생들의 성공적인 교육과정 완료를 축하했다.

상주농업대학은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핵심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여 2024년 17기까지 총 755명을 배출했다.

올해 상주농업대학은 입학생 49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 개강하여 총 26회, 연간 108시간에 걸쳐 마케팅 기본 이론부터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습 및 선도농가 견학 등 농업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수료생은 출석률 80% 이상과 졸업시험, 개인 과제 발표, 보고서 제출 등 엄격한 학사 규정을



모두 통과한 38명이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교육생 대표인 학생회장 고희호가 농촌진흥청장 공로상을 받았고, 농업대학 과정 중 학생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김현수 외 2명이 성적우수상을, 농업대학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고희호 외 6명이 모범상을, 학생들의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감사장을 이석재 외 3명이 수상했다.

상주농업대학 학장은 "오늘 이 자리가 있기 까지 힘든 날도 있었겠지만, 묵묵히 끝까지 달려와 수료증을 받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농업마케팅과 수료는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므로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청 신도시 아파트 건설 실적 '제로섬'



경북도의회 제350회 임시회가 막을랐다. 이번 회기에서 민생 조례안 등 60여개 안건이 처리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 모습(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최덕규 경북도의원



김대일 경북도의원



김재준 경북도의원

박성만, 연초 계획 사업 한 번 더 점검  
최덕규, 소나무재선충 경북산림 피해  
김대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 지적  
김재준, 한화리조트 문답야 경제 위기

경북도의회 제350회 임시회가 막으리면서 집행부를 향한 공격수위가 높다.

임시회는 10~22일까지 13일간이다.

무엇보다 새달 7~20일까지 예정된 2024 행정

사무감사는 저인망식 초강수 감사를 예고한다.

도 의회는 도정질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최덕규(경주), 김대일

(안동), 김재준(울진)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다.

제2차 본회의는 22일 개회한다.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 각종 조례안, 출자

출연동의안 등 6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저층생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수지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260

만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알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가지"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당면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시련과

갈등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 ■최덕규 도정질문

경북의 산림이 망가지고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탓이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도

의원(경주2,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집중거론

했다.

그는 제35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수종 전환 및 피해복 재활용 방안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일부 예산 문제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이자수익의 경주시 환원 △쌀 과잉생산문

제 △이주배경학생 교육 패러다임(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 전환까지 경북도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최 도의원은 이철우 지사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경북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게 이유다. 그는 경북도의 방제 예산 투입에도 확산이 계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도의원은 "현재 소규모로 발생하던 재선충병이 최근에는 밀집형태의 집단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며, 기존의 방제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도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소나무가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방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수종전환과 혼효림 조성 등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피해목을 목재 펠릿, 톱밥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경주시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했다.

경주시에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 유치된 배경과 유치 지역에 제공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언급했다.

하지만 "유치지역지원사업 중 일부 일반지원사업 예산의 집행과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치지역지원사업은 정부가 경주시민들에게 한 중요한 약속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있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의 이자 수익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경주시민들이 겪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자 수익을 경주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과잉 생산 문제 해결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최 도의원은 경북이 농업대전의 성과로 제시하는 농지 임대료 배당수익이 소득 증대가 맞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 현안문제인 쌀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라고 밝혔다.

최 도의원은 "농민들이 타작물 재배로 전환에 있어 두려워하는 것이 기계장비 구입이다. 기계장비 등 인프라 지원만 확대해도 타작물 재배 전환이 늘어나고 쌀 생산량 조절뿐 아니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북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경북 지역의 이주배경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 이주배경 학생들을 포용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다"며, 이로 인해 학업 중단율이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높다는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초·중·고 단계에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아기부터의 한국어 교육과 함께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대일 도정질문

김대일 도의원(안동3·국민의힘)은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했다.

김 도의원은 "도청으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선심 쓰듯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많고, 사실상 아파트 건설 실적은 제로에 가깝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그는 향후 기관 이전 등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주공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짚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다"며 도청신도시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도청신도시는 2016년 경북도청을 시작으로 현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약 70%가 이전을 완료했다. 인구는 2024년 2분기 기준, 2만 2600여 명으로 당초 1단계 목표치인 2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에 간혀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경북도특별자치도 추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 정책 재추진을 대안으로 "중부권에 형성되어 있는 1500만 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이를 주도, 국가 균형발전과 경북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자"고 부연했다.

이미 청사진이 나와 있고, 바뀐 정책들만 재검토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우리나라 중심인 북위 36도를 지나는 7개 시도(경북,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전북)가 정책 공조를 통해 경제산업, 문화관광, 교통인프라 등 광역협력력을 추진해 나가는 경제권을 뜻한다.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 경북도청이 북부권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교두보를 마련하지는 취지로 논의된 바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의회, 시도민과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일 도의원은 "경북의 살길은 역사와 전통을 잘 지키면서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나가자"고 촉구했다.

### ■김재준 도정질문

김재준 도의원(울진, 국민의힘)은 도내 노후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울진 백암온천 지역경제 활성화 △후포 마리나항 활성화 방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 △학교 내 댕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을 질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준 도의원은 지난 1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토인프라 총조사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가 필요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도내 저

수지, 교량 등이 36곳으로 전국 69개소의 절반이 넘는다고 질타했다. 이들 시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미조치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기반 시설에 대해 도차원의 선제적인 노후화·위험성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화리조트 영업 중단을 문제 삼았다.

지역경제 침체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울진 백암온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 온정-메하간 국지도 조기 개통으로 접근성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영양군을 비롯한 인접 시군과의 연계 광역 협력사업, 충남 예산 덕산 온천 사례를 들어 경영 개발방식의 종합개발 등을 제안했다.

후포 마리나항 문제점도 꼬집었다.

2014년 해양수산부 선정 국가지원 제1호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으로 선정, 2022년 준공하고도 민간 투자유치 등이 지연,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마리나항 운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때문에 "향후 운영방안 활성화 대책 마련으로 경북도의 해양 레저관광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분야 질문에서는 교육원장까지 확산된 댕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심각한 디지털 재난으로 규정했다.

사전 예방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피해 영상물 삭제를 비롯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촉구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 한마디 했다.

그는 TK통합은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적 실리를 떠나 도민의 미래가 걸린 대입임은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 재추진에 따른 경북지사의 의지와 쟁점사안 입장, 도민실득 방안을 질의했다. 김 도의원은 "지역 경제 소멸 위기 가운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이 선도하는 지방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내 현안들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김성용 기자

月刊 **정치와사람**

곧 독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대구광역시보가 조만간 월간 정치와사람을 발간, 독자 곁으로 다가갑니다.